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일자리 강세 또 확인: 12월 22만3천개 추가, 실업률 3.5%
- WSJ: 글로벌 수요 둔화로 11월 미 무역적자도 대폭 줄어

#### [금융]

- Bloomberg: 이머징 마켓 주식 상승... S&P 500과 비교해 6개월 중 최고치

####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중국의 재오픈이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지장을 초래할까?
- WSJ: 따뜻한 겨울 날씨로 전쟁 유발 유럽 인플레이션 개선된다

#### [에너지]

- WSJ: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가스가격 하락 혜택 보려면 수개월 걸려
- WSJ: Shell, "작년 4분기 천연가스 수익 반등 기대한다"

#### [미 전기 자동차]

- CNBC: 2030년 EV배터리 제조를 지배할 주(state)는?
- WSJ: 2022년 미 전기차 판매량 증가... 테슬라 점유율 하락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불경기에 승진하기 위한 5가지 팁
- WSJ: 미 맥주 판매 줄었다... 높은 가격 부담 탓
- WSJ: 퀄컴, Iridium과 손잡고 모바일 위성메시징 시장 공략

#### [보고서]

- JP 모건 보고서: 세계 경제 상황과 향후 10가지 투자 전망 테마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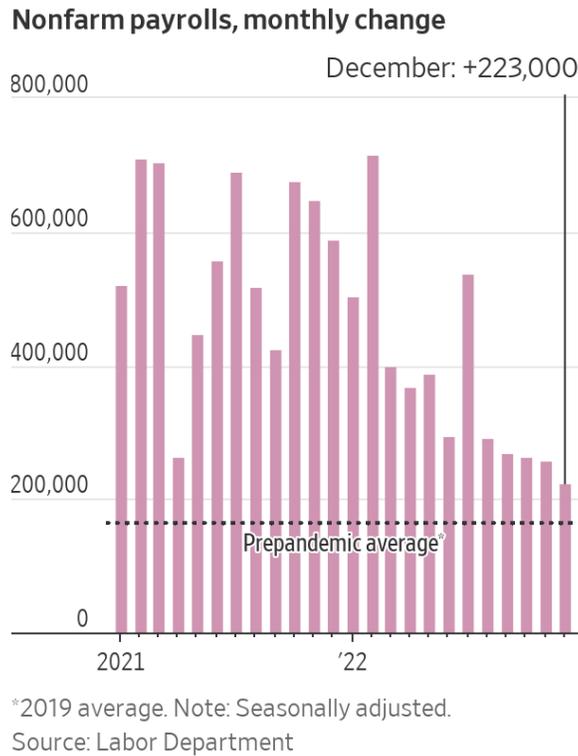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U.S. Employers Added 223,000 Jobs in December; Unemployment Fell to 3.5%

#### 미 일자리 강세 또 확인: 12월 22만3천개 추가, 실업률 3.5%

- 12월 미 고용주 채용 건수가 22만3천개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1월 3.6%에서 3.5%로 줄었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일자리 추가는 11월 상향 조정치 25만6천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이다.
- 작년 통틀어 일자리 증가 숫자는 4백50만명으로 40년 만에 두번째로 연간 큰 증가 수다.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부터 반등에 6백7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 지난달 일자리 늘어난 내역은,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헬스케어, 레저, 환대산업에서다.
- 반면에 줄어든 업종은 테크 업종, 택배, 메신저, 창고 및 창고 근로자 사이에서 고용이 약간 감소했다.
- 임금 상승세는 수그러져 12월은 전월 대비 0.3%,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 노동참여율도 11월 62.2%에서 62.3%로 약간 증가했으나 크게 보면 팬데믹 전보다 비율이 여전히 낮다. 고용주가 여전히 채용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WSJ 기사

### WSJ: U.S. Trade Deficit Narrowed Sharply in November as Global Demand Cooled

#### 글로벌 수요 둔화로 11월 미 무역적자도 대폭 줄어

- 한마디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속에서 미국의 수입 규모는 수출보다 더 줄어들었다.
- 11월에 미국의 세계 교역 규모가 크게 떨어졌는데 무역 적자 폭이 20% 이상 줄었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신호다.

- 미국 수출은 10월보다 2% 떨어졌는데 비행기,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라고 어제 목요일 연방 상무부 보고는 밝혔다.
- 수입은 전월에 비해 6.4%로 줄었다. 줄어든 수입 품목은 컴퓨터와 자동차 등이다.

WSJ 기사

## [금융]

**Bloomberg: Emerging-Market Stocks Rise to Six-Month High Versus S&P 500****이머징 마켓 주식 상승... S&P 500과 비교해 6개월 중 최고치**

- 한마디로 MSCI 지수가 지난 10월 이래 S&P 500보다 19%의 초과 수익을 냈다. 중국 경제가 재개된되다 달러 약세가 주요 원인이다.
- 이같은 이머징 마켓의 상승세는 연초까지 계속되어 S&P 500와 비교해 6개월 기간에 최고치를 상승하고 있다.
- 중국의 재오픈, 달러 가치 둔화에 글로벌 인플레이가 수익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 옵션 거래자들은 이같은 지역간 수익차가 더 벌어질 것에 베팅하고 있다. 즉,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 기대치는 줄이고, 미국에 대한 변동성은 올라갈 것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한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How China's reopening will disrupt the world economy****중국의 재오픈이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지장을 초래할까?**

- 중국이 이달 8일 국경의 빗장을 푸는 등 '제로 코비드' 정책과 결별하면서 종국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 우선 충분한 준비, 즉 노약자 접종,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을 하지 못한채 재오픈을 하는 바람에 일부 추정에 따르면 향후 수개월에 전염자가 1백50만이 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이 나온다.
- 중국의 재오픈은 다른 국가들에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을 야기 시킬수 있다는 것. 중국 재오픈이 심할 정도로 가격 압박을 일으킬 경우 중앙은행들이 더 오랫동안 금리 긴축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 서구를 비롯해서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함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 중국 재오픈으로 오일이 배럴당 1백달러 올라가고 천연가스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성이다. 재오픈으로 예전으로 중국이 회복되긴 힘들다.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현재 계속 위축되고 있다. 중국 외 대체 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 **WSJ: Warmer Weather Helps Ease Europe's War-Driven Inflation Surge** 따뜻한 겨울 날씨로 전쟁 유발 유럽 인플레이션 개선된다

- 유럽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온난한 날씨 탓에 에너지 가격이 줄면서 연 인플레이션이 한자리로 낮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이 유럽중앙은행 관리들이 보기에 여전히 빨리 상승,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또한 한번 올리지 않을까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그런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유로존 정부들의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조치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 한편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11월 10.1%에서 12월에 9.2%로 둔화하였다.

WSJ 기사

### **[에너지]**

### **WSJ: Sliding Natural-Gas Prices Deal Surprise Reprieve to Europe**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가스가격 하락 혜택 보려면 수개월 걸려

- 천연가스 하락은 정부 재정과 에너지 집약적인 유로존 회사들에 희소식이다.
- 그러나 가격 하락에 따라 각 기업이 생산량을 크게 늘려 소비자들이 결국 혜택을 보려면 수개월동안 가스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 따뜻한 겨울과 충분한 가스 보유량으로 시장 상황이 역전되고, 가스 가격은 지난 날에 거의 반 정도 하락해서 러시아 침공 전 수준으로 되돌아 온 상태다. 매가와트 시간당 도매가격이 74유로에 거래되어 작년 8월말 3백 50유로에서 크게 내렸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선물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WSJ 기사

### **WSJ: Shell Expects Natural-Gas Profit Rebounded in Fourth Quarter** Shell, “작년 4분기 천연가스 수익 반등 기대한다”

- Shell는 오는 2월 2일 예정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4분기가 3분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본 것으로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예상되는 수익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Shell의 가장 큰 현금 창출 원인 낮은 비즈니스 세금 때문이라는 것.
- Shell은 그동안 치솟은 에너지 비용에 기업과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영국이 채택한 이른바 '이익 부담세(Windfall Tax)' 때문에 20억달러 세금을 더 내기로 된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기간이 향후 수년간 지불하기로 되어있어 4분기에 조정된 수익이나 현금 상태에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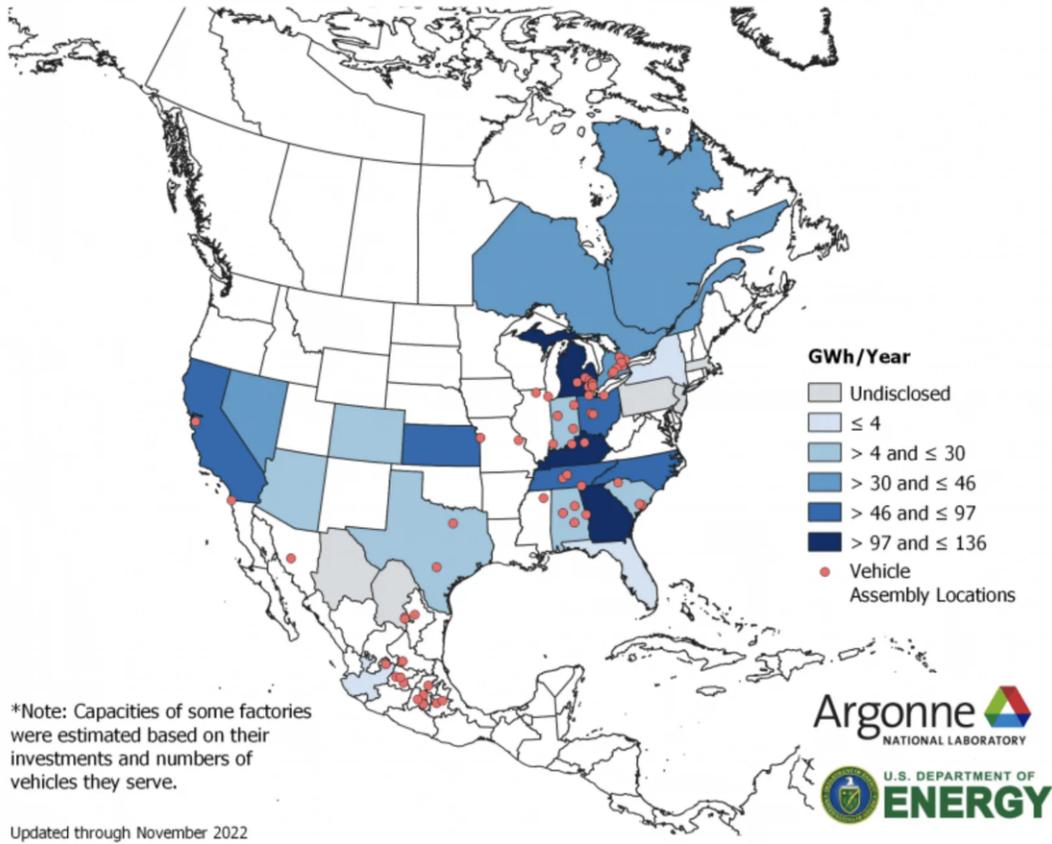
WSJ 기사

### [미 전기 자동차]

#### **CNBC: These states will dominate EV battery manufacturing in 2030** 2030년 EV배터리 제조를 지배할 주(state)는?

-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주가 2030년까지 연간 97~136기가와트시(gigawatt hours)의 EV배터리를 제조하며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캔자스,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도 주요 지역이 될 전망이다.
- 증가하는 EV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북미 EV배터리 제조는 2021년 연간 55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연간 1천 기가와트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1천~1천3백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며 미국이 세계적인 EV 생산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한편 보고서에 예정된 거의 모든 공장이 파나소닉,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와 자동차 회사 간의 합작 사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lanned Battery Plant Capacity in North America by 2030



CNBC 기사

### WSJ: U.S. EV Sales Jolted Higher in 2022 as Newcomers Target Tesla 2022년 미 전기차 판매량 증가...테슬라 점유율 하락

- Motor Intelligence가 이번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 내 전기차 가 80만 7천1백80대 판매되어 전체 판매 차량의 5.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의 3.2%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줄었다.
- 테슬라는 지난해 전체 EV판매량의 65%를 차지하며 여전히 미국 EV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EV모델을 다수 출시함에 따라 2021년의 71%보다 점유율이 떨어졌다. 포드 자동차가 7.6%로 2위, 현대 기아가 7.1%로 3위를 기록했다.
- 한편 작년부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 규제가 EV 경쟁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된 리스 차량에도 7천5백달러의 상용차 세액 공제 자격 부여 조치는 현대차에게 유리하고, 포드와 테슬라에는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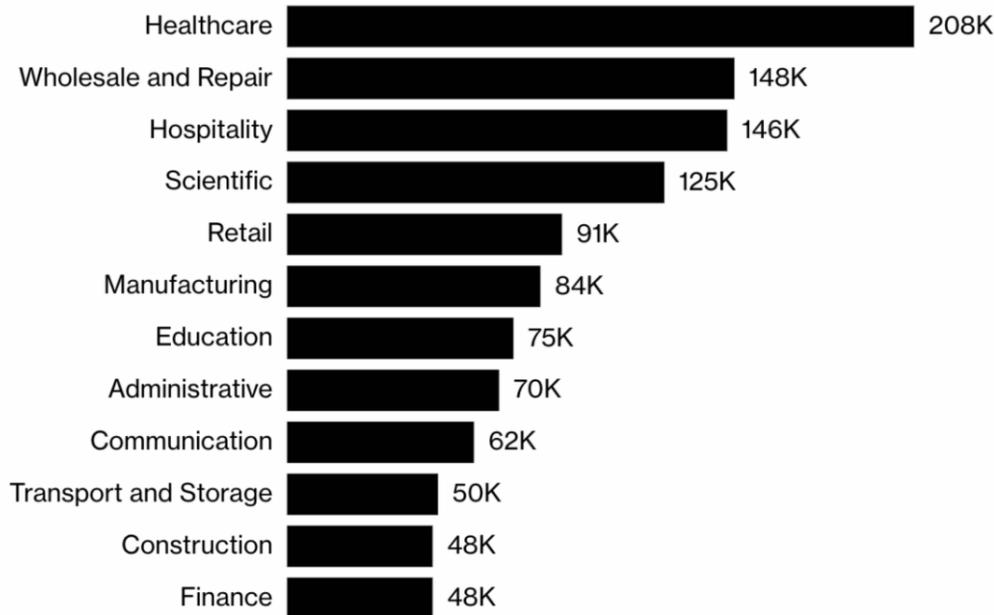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Top Five Tips for Securing a Promotion During a Recession**  
**불경기에 승진하기 위한 5가지 팁**

- 1. 재택근무 피하기:**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승진률을 줄인다. 관리자에게 자신의 헌신과 기술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불경기에 유리한 경력 쌓기:** 기업은 불경기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직원을 자를 수 없다. 자신을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의료, 유통, 온라인 소매와 같은 경기 침체에 영향이 적은 직종으로 옮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자신에게 맞는 일 찾기:** 현재 직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짧은 인턴십, 다른 업계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 4. 자기 업무 기술 개발:**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이 아닌 '기술'에 집중하면 최고의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5. 조직이 원하는 것을 묻기:** 자신의 관리자에게 회사가 자신에게 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한 모든 노력을 기록해 승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 Job Vacancies Remain High

Many UK sectors are still seeing vast unfilled jobs at the end of 2022

■ Vacancies (September - November 2022)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loomberg 기사

## WSJ: Beer Sales Drop as Consumers Balk at Higher Prices

미 맥주 판매 줄었다...높은 가격 부담 탓

- 비교적 불황에 강한 것으로 여겨지던 맥주 업계가 지난 10월 업계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 이후 2022년 하반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미국으로의 맥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고, 인기있던 맥주 브랜드들도 판매량이 감소했다.
- 한편 미국 맥주 판매량은 사람들이 점차 와인과 양주를 선호하며 수년 동안 감소해왔지만, 2022년 마지막 분기 가격 인상과 함께 큰 타격을 입었다.
-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지역 편의점이나 식료품점 대신 할인과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big-box나 클럽 스토어로 향하고 있다. 이에 버드와이저 등 맥주 업계는 더 저렴한 패키지를 도입하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WSJ 기사

## WSJ: Qualcomm, Iridium Take Aim at Satellite-to-Mobile Phone Market

## 퀄컴, Iridium과 손잡고 모바일 위성메시징 시장 공략

- 퀄컴이 CES 2023에서 현재 66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Iridiu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셀룰러 연결이 불가능할 때 위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술은 올 하반기부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퀄컴의 칩이 장착된 기기에 위성 기반 비상 연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향후에는 스냅드래곤 위성(Snapdragon Satellite)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을 통해 비상 연락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휴대전화 서비스에 위성 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지상 셀룰러 네트워크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T-Mobile과 스페이스 X, 애플 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성과 스마트폰 간에 음성 통화와 같은 대중적인 사용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 [보고서]

영어 원본이 필요한 회원사 임직원은 이메일 제목에 'JP 보고서 원본 요청'이라고 하셔서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망과 금융 상황 다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JP 모건 보고서: The Great Repricing – Top 10 Strategic Investment Themes for 2023 and Beyond 세계 경제 상황과 향후 10가지 투자 전략 테마

1. 현재 수준에서 S&P 500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8.2%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1.5%의 1-시그마 위험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채권과 주식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우려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 채권 수익률이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 오면서 다시한번 균형잡힌 포트폴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JP 모건 글로벌 에쿼티 전략가들은 시장 변동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VIX가 평균 ~25를 기록하고 S&P 500이 잠재적으로 2022년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
2. 우리는 경제가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탈세 계화와 물가안정실업률(NAIRU)의 불안정성과 필립 곡선이 수십년간 보였던 내림세보다는 오름세 쪽으로 인플레이 위험성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 장기적인 채권 수익률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 노령화 (Great Aging)"는 중국과 DM의 많은 지역에서 노령자 부양이 늘면서 시작되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저축률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들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실질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 재정 및 부채 지속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선진국 DM 국가 부채 수준은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된다.

4. 미국의 달러와 주식 및 채권 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역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다. 2023년 1분기에는 중국의 빠른 재오픈과 EMX의 대규모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흥국 자본 흐름이 더욱 급격하게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러시아 전쟁은 시간이 가면서 상당한 공급망 재배치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는 상당한 위험성을 지켜볼 것인데, 즉 포퓰리즘 증가, 미·중 갈등,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자급자족 노력 때문에 탈세계화는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과 자산 수익 마진은 줄어든 것이다.  
미국 같은 큰 나라는 IRA 같은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JP 모건은 유사한 파트너 국가들끼리의 공급망 재협력에 따라 상당히 높은 생산 비용과 공급망 중복성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브렌트 원유는 2023년에 \$90/bbl, 2024년에 \$98로 예상되는데 전쟁 종식 가능성이 있을 경우 \$75로 떨어질 수 있다.
- JP 모건은 원자재와 EM FX를 좋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계속 보고 있다.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에는 에너지 선물과 주식이 포함되는 반면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헤지가 된 적이 없는 귀금속을 제외하고 글로벌 유틸리티 및 상품 선물, 특히 가축 및 산업용 금속을 들 수 있다.
6. "Made in China 2025"는 미국의 제재 강화로 역풍을 만나고 있지만, 중국도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상당히 글로벌화 하면서 공급망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다.  
탈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역할자로 남아 있을 것이며,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2021년에 1천1백80억달러로 전년도보다 32억 늘었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긴장을 키울 수 있는 IRA와 같은 산업정책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 저개발국에 가장 큰 대출자를 나서게 되면서 다른 서구나 IMF/World Bank를 능가하면서 이머징 마켓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7. 중국에서 국내 반독점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핵심 산업에서 국내 경쟁력 강화와 자급 자족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8. "ESG 2.0의 부상"은 잠재적인 '위장 환경주의'(Greenwashing) 대한 지속적인 조사 계속되고, ESG 원칙의 해석 및 통합면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ESG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표준화 및 공개(disclosure)에 대한 합의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JP 모건은 보고있다. 3개 즉, 바이오 다양성, 거버넌스 및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 2023년 이후에 견인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9. 2023년에 전통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의 조정과 채권 수익률 상승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에서 7%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0. JP 모건은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비율 60대 40을 유지하고, 스타팅 포인트로서 선진국 DM 주식 대신에 글로벌 주식을 보고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추가적인 아웃포럼 전망에 대해, 그리고 현재 너무 비싼 달러가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 12월 일자리, 예상보다 많은 22만개↑...실업률 3.5%로 하락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려졌으나, 예상보다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더 내려갔다.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직결되는 임금 상승세는 다소 꺾여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2만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